

真相 진상



장쩌민의 3대 죄악



El Rey pide a China más derechos humanos
El presidente de China, Jiang Zemin, saludó oficialmente al rey de España durante dos días. Ante su parón a las vistas de material foto-fónico de ABE SA (filial española de la empresa francesa Alcatel).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이 장쩌민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할 때 장쩌민이 갑자기 빗을 꺼내더니 공공장소를 화장실로 간주하고 교태를 부리는 여인처럼 머리를 빗었다. 국왕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1996년 6월 25일, 스페인 최대 신문 '엘파스' 1면 톱기사에 '장쩌민의 머리 빗기를 보는 카를로스 국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굴욕적인 사진들

국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은 국가지도자 신분으로 나타날 때 늘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췄으며, 혹은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또는 여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등 수많은 추태를 부려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2002년,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연회석에서 장쩌민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이슬란드 최대 신문사가 큰 사진과 함께 이 에피소드를 상세히

Morgunblaðið
LAUGARDAGUR 15. JÚNÍ 2002
VERÐ Í LAUSASÖLU 190 KR. MED VSK

Tap Norðurljósa 2,8 milljarðar í fyrri
„Hreinsað mjög vel til í félaginu“

TAP Norðurljósa samskiptaflöng hf. nam 2,8 milljörum króna í árinu 2001 en 402 milljóna króna hagnaður var fyrir afskriftir og fjármagnsóð (EBITDA). Á fyrstu þremur mánuðum ársins 2002 nam hagnaður félagsins 32 milljónum króna og EBITDA-hagnaður nær 94 milljónum króna.

Afskriftir voru tapir 1,9 milljörum króna og er það verðing aukning frá fyrri ári en lá sömu afskriftir 711 milljónum. Tapu milljarðar skýrt af auknum af skriftum varanlegra rekstrarfjármuna vegna mikilla fjárfestinga í sí, tvínum árum.

Eignir Norðurljósa voru í mars lok bókfærðar á 10,9 milljarðum króna. Jar af vora óheimlegar eignir 4,8 milljarðar. Eignir fé nam 37,1 milljónum, langtímakvætur tapen 6,6 milljörum og skattmáttaskóðir í um 3,9 milljörum.

Sigurðar G. Guðjónsson, forsetji Norðurljósa, segir að með ársoppgjöri 2001 hafi verið hreinsað mjög vel til í félaginu. Það sé sú vor

in, forseti Kína, syngur Ó seldu mío í hátíðarkvöldverðinum í Perlanu í gærkvöldi við mikinn fjölmóð áhyrenda. Til vinstri er Durrit Moun-sieff, heitkona Ólafs Ragnars Grínssonar, forseta Íslands, sem situr við hló Wang Yeping, eiginkona forseta Kína.

2002년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연회석에서 장쩌민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다. 장쩌민의 부인 왕예핑(우측)은 매우 난처한 표정이다. 아이슬란드 최대 신문사가 큰 사진과 함께 이 에피소드를 상세히 보도해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해 국제적으로 장쩌민을 조소했다.

1996년,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은 장쩌민을 유람선 만찬에 초대했다. 장쩌민은 흥이 넘쳐 마이크를 잡더니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를 소리 높여 불렀다.

1999년 10월 24일, 프랑스의 한 박물관을 참관 중이던 장쩌민은 영

부인 베르나데트의 손을 잡고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며 분개했다.

1999년 3월 30일, 장쩌민은 오스트리아 클레스틸 대통령의 안내로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를 방문했다. 모차르트의 생가에서 가장 값진 유품은 피아노였다. 모차르트 외에 누구도 이 피아노로 연주



1998년 장쩌민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우측 2 번째) 앞에서 '사랑스런 장미'라는 노래를 연주하며 불러 여기자의 환심을 사려 했다.



1999년 프랑스의 한 박물관을 참관 중이던 장쩌민이 영부인 손을 잡고 강제로 알츠를 쳤다.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였다. 장쩌민은 두 영부인이 서로 인사를 나눠야 할 때 팔을 뻗어 아내를 가로막고 다른 손으로 부시 대통령을 밀어내 매우 난처하게 했다.



중공이 큰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장쩌민은 여성 도우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피아노 앞에는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클레스틸 대통령이 피아노 소개를 마치기 바쁘게 장쩌민은 피아노에 앉더니 뚜껑을 열고 중공 찬미 가요 '홍호(洪湖)의 물결 넘실거리네'를 연주했다. 이튿날 오

스트리아 매체는 이 사건을 '추문'이라는 제목의 톱기사로 보도했다. 장쩌민의 이 같은 교양 없는 표현의 뒤에는 인위적으로 은폐하려는 죄악들이 있다. 장쩌민은 재임 기간 적어도 3가지 큰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역사의 심판대로 올리기에 충

분하다. 중국 영토를 팔아먹었고, 중국 부패분자들의 총 배후이며, 파룬궁을 박해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설사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악명을 남겨선 안 된다. 장쩌민 시대에 매수돼 이용된 중공 정법

(政法) 계통이 대면적으로 숙청되고 보응을 받는 상황에서 장쩌민의 죄악을 명백히 보아내고 마음에서 도덕과 선량을 지켜야 더는 속지 않고 연루되지 않아 변화하는 세상 중에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다. ◇

목록

진상특간 : 장쩌민의 3대 죄악

【권두언】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굴욕적인 사진들 2
 중국공산당 독재자 장쩌민이 남긴 끔찍한 유산 7

【초점포착】

장쩌민의 첫 번째 죄악 ‘나라를 판 매국노’ 11
 매국노 출신
 소련 스파이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팔아먹다

장쩌민의 죄악 2: 중공 부패세력의 최종 배후 14
 부패하게 군을 통치
 ‘중국 제일의 탐관’ 장면형(江绵恒)
 중국을 비우고 인민을 착취

장쩌민의 죄악 3: 파룬궁 박해 19
 ‘텐진 사건’으로 발생한 1만 명 평화 청원
 ‘1400건’ 가짜뉴스의 진실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 조작
 창춘 삼입 방송이 거짓된 철의 장막을 찢다
 총에 맞고 억울하게 옥사한 류청진
 20만 명 장쩌민 고소
 정법(政法) 관리들의 낙마와 죽음의 직위 ‘610’



중국공산당 독재자 장쩌민이 남긴 끔찍한 유산 중국에서 대량 감금, 고문, 살해의 주모자 장쩌민 사망

글/ 파룬궁 정보센터 이사 레비 브라우드(Levi Browde)

7천만~1억 명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지시한 장쩌민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장쩌민은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며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인류의 쓰레기다.

장쩌민은 수십 년간 중국인, 특히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치명적이며 장기적인 박해를 감행했던 자로 기억될 것이며 세상에서 악인이 하나 줄어들었다.

장쩌민의 편집증적인 탄압

파룬궁은 불가(佛家) 전통 수련법

으로 1992년에 대중에게 소개된 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파룬궁은 기공(氣功) 수련 애호가들과 ‘진선인(真·善·忍)’에 이끌린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실제로 파룬궁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도덕성을 향상시켰는데, 열린 마음을 가진 중국 관리들로부터 많은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다.

1999년 초, 중국 국가체육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 수는 7천만에 달해 중국공산당의 전체 당원 수를 넘어섰다. 중국 국영 방

송은 1억 명 이상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보도했다.

파룬궁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포부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장쩌민은 파룬궁이 인기는 높지만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산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1999년 봄, 장쩌민은 일방적으로 파룬궁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1999년 7월 20일, 그는 문화대혁명 식 운동을 발동해 파룬궁에 대한 모함 선전, 분서(파룬궁 서적 불태우기), 수련자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금과 강제 '전향'(수련 포기)을 벌였다.

장쩌민은 광적인 정도로 이번 박해 운동을 지휘했다

1999년 11월 9일 워싱턴포스트는 “파룬궁을 ‘사교(邪教)’로 분류하고 사교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한 사람은 장쩌민이었다”고 보도했다.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의 권력을 과시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탄압이었다... 공산당 소식통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탄압을 만장일치로 지지하지 않았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반드시 소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한 당 간부는 “이것은 분명히 장쩌민 개인적인 사욕”이라고 언급했다.

2001년 CNN 선임 분석가 윌리 램은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으로 고

위 관리들의 충성 맹세를 확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2002년 파룬궁수련자 5명이 창춘(長春)에서 지역 케이블 방송에 삼입 방송을 해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과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극도로 분노한 장쩌민은 수련자들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창춘: 영원한 봄(Eternal Spring, 長春)’은 2023년 오스카 최우수 국제장편영화 부문 캐나다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수백만 생명을 해치다

1999년 장쩌민의 결정으로 빚어진 결과는 참담했다. 수백만의 무고한 수련자들이 집이나 거리에서 납치된 후 감옥과 노동수용소에 불법 수감됐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됐다.

장쩌민의 지도 아래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수련자의 수련을 포기시키려고 조직적인 폭력과 고문을 가했다. 2001년 워싱턴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파룬궁)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 사용을 허가하고 세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집집마다, 회사마다 파룬궁수련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전기봉, 성적 학대, 정신과 약물 주사가 일상화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영구적인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되거나 정신 이상이 됐다.”

2006년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만프레드 노왁(Manfred Nowak)은 중국 수용소에서 발생한 모든 고문 대상의 66%가 파룬궁수련자라고 보고했다.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에 관한 2013년 뉴욕타임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가장 심한 학대 대상자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자였다.”

2017년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는 “중국 전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광범위한 감시, 임의적 구금,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초법적 처형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최대 12년 형을 선고받은 파룬궁수련자 933건을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고문과 학대로 4800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고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데 따른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쩌민의 최악의 범죄는



캐나다 최대 영화 투자사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가 <창춘>이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 Lofty Sky 제공.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량의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다. 2019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의 독립민간재판소 ‘중국재판소 (China Tribunal)’의 하미드 사비 (Hamid Sabi) 고문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자행됐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기적출에서 ‘수십만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주로 파룬궁 수련자였다고 지적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2021년 성명에서 이 주장이 믿을 만하다며 이에 대해 극도로 경악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이식남용 종식’(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에서 공개한 비디오에 따르면 바이수중(白晝忠) 전 중공군 총후근부(병참부) 위생부장은 법의학적 조사를 위한 전화 통화에서 장쩌민이 장기적출을 위해 파룬궁수련자 살해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장기적 영향

장쩌민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파룬궁 탄압을 실행하면서 일련의 탄압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성시켰다.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구치소

와 감옥을 확장했고 고문 전문가들에게 승진과 보너스를 지급했으며, 파룬궁 박해에서 계슈타포나 KGB 역할을 하는 ‘610사무실’이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립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 선전 능력을 연마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래 파룬궁을 대상으로 설계됐지만 현재 이러한 도구는 위구르인과 다른 중국 민중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장쩌민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전 세계에서 수십 건의 국제소송과, 중국 내 피해자들이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직접 제기한 20만 건 이상의 고소도 있었다.

장쩌민의 죽음은 그가 벌인 탄압으로 지난 23년간 사망한 수많은 수련자들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또 박해로 흩어진 수백만 가족을 복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오늘날 중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수련자들에 대한 잔인함도 경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쩌민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주고 있다. 즉, 박해자들이 양심에 따라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매국노 출신

장쩌민의 아버지 장스쥘(江世俊)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대신 일을 한 매국노였다. 1940년 11월 왕징웨이(王精卫)의 일본 괴뢰정부 수

립 후 장스쥘은 장관첸(江冠千)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징 왕웨이(汪伪) 정부 선전부 부부장 겸 사설위원회 주임을 맡았으며 유명한 매국노 작가이자 ‘중화일보’ 주필인 후란청(胡兰成)의 주요 수하였다.

장쩌민은 1949년 23살 때 공산당이 집권하자 자신의 매국노 집안을 숨기고 가족 중 한 명인 여섯째 숙부 장상칭(江上青, 1928년 공산당에 가담해 혁명을 일으켰다가 1939년 난사한 총에 맞아 사망)이 생각나, 자신이 13살(1939년) 때 삼촌 장상칭의 양자가 됐다며 자신이 ‘열사의 자제’라고 높이 떠들어댔다. 그런데 사실 장쩌민이 13살 때 장상칭은 이미 사망했다. ‘죽은 사람이 양자를 들이다’, 가짜 ‘열사의 자제’는 이후 웃음거리가 됐다.

장쩌민 자신도 일본군 간첩이 상하이에서 운영하는 특무 양성반에 참가했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간첩의 총두목이자 육군 대장 토비하라 겐지는 덩머춘(丁默邨)이라는 유능한 조수가 있었는데, 그가 상하이에 특무 본부를 설립했다. 덩머춘은 총 4기 교육반을 운영했고 장쩌민은 4기에 참가했다.

소련 스파이

1945년 소련 홍군은 중국 동북부를 급습해 장쩌민이 일본군에서 훈

련받은 문서를 포함해 일본군 간첩 두목 도이하라 겐지의 공작 시스템 기밀문서를 입수했다. 1955년 장쩌민이 소련에 유학하고 있을 때 소련 정보 당국은 장쩌민이 매국노로 활동한 정보를 발견하고 여성 스파이 크라바를 이용해 장쩌민을 극동지역 소련 스파이로 만들었다.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팔아먹다

장쩌민은 자신의 매국노 신분(일본 매국노, 소련 스파이)을 감추기 위해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구했으며 러시아에 판 영토 면적만 40개 대만 면적과 맞먹는다.

1999년과 2001년에 장쩌민은 엘친, 푸틴과 일련의 중·러 국경 의정서에 서명해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팔았는데 이는 동북 3성의 면적에 해당하며, 블라디보스토크 및 인접 극동 지역의 700평방킬로미터에 가까운 토지는 영원히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장쩌민은 또 두만강 출구를 러시아에 넘겨 중국 동북에서 태평양으로 통하는 출구를 봉쇄했다. 장쩌민은 매국 행위 후 대내적으로 소식을 봉쇄했지만 몇 년 후 러시아

에서 관련 조약을 발표하자 중국도 알게 됐다.

장쩌민의 ‘의정서’는 근대 중화민국 이래 역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중·러 불평등 조약 ‘아이훈조약’, ‘베이징조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쩌민은 협정 체결 후 군사위주석 자격으로 중국 국경경비대에게 100km를 더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장쩌민은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도 조약을 맺어 분쟁지역 영토를 거의 포기했다.

장쩌민은 1996년 필리핀 방문 때 자발적으로 난사군도 주권 쟁의를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

1996년 11월 말 장쩌민은 인도를 방문해 맥마흔 선을 인정하고 히말라야 남쪽 기슭의 비옥한 9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포기했다.

1999년 12월 30일 장쩌민은 ‘중국과 베트남의 육지경계조약’을 비준해 수천 중국 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키던 윈난 라오산(老山), 광시 파카산(法卡山)을 베트남으로 귀속시켰다.

장쩌민처럼 외국에 자국 영토를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지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



블라디보스토크는 자연적인 열지 않는 부동항으로 태평양변의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데 1999년 장쩌민이 러시아에 선사한 것이다.



전 중앙정법위 서기 저우융강(周永康)이 재판받고 있다. 중국 언론은 저우융강이公安부장으로 임직하는 기간에 150~200%의 형사안건을 허위 보고했고, 270억 위안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 배후는 장쩌민이었다.

장쩌민의 죄악 2: 중공 부패세력의 최종 배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43명의 부성장급 및 군단급 이상 관리들이 부패로 조사받았는데 대부분은 장쩌민이 중용한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진정한 부패는 장쩌민이 집권하고서부터 시작됐다. 장쩌민은 1989년 '6.4' 천안문 학생운동 학살 현장의 지휘자이자 최대수혜자다.

장쩌민은 덕이 없고 무능해 나라를 다스릴 좋은 방법이 없자 부패와 음란한 수단을 이용해 중공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당으로 만들었다.

부패하게 군을 통치

장쩌민의 부패 집권은 군의 부패에서부터 시작됐다.

2013년~2017년, 140여 명의 장군이 부패 행위로 단속됐는데 이는 중공의 내외 전쟁에서 사망한 장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이 부패 장군들은 대부분 장쩌민이 발탁했다.

관직을 높여 인심을 매수

‘장쩌민 그 사람(江泽民其人)’이라는 책에 따르면 장쩌민은 총도 만져본 적이 없어 군에서 신망이 없었다. 그는 인심을 얻기 위해 장군들의 관직을 자주 높여줬다.

1988년 군계급제가 복원된 후 중앙군사위는 96명에게 상장과 경위를 수여했다. 그중 17개는 1988년에 덩샤오핑이 수여한 것이고, 나머지 79개는 장쩌민이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수여한 것이다. 소장, 중장 직함 수여는 너무 많아서 장쩌민에게는 애들 장난 같았다.

군의 밀수 횡령을 방임

군의 상품경영은 80년대 중기부터 시작됐는데 초기 목적은 군사 보조금에 보태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

쩌민은 군사위 주석으로 당선된 후 군의 부패를 방임해 인심을 얻으려 했다.

곧 군에서는 전대미문의 난리가 났다. 동남 연해로부터 북방에 이르기까지 밀수가 창궐했다. 주룽지(朱镕基)는 ‘반(反) 밀수’ 회의 중에서 1998년 상반기에 군의 밀수 과정에서, 총이나 대포를 쏘서 사망한 세관원과 무장경찰, 사법 인원이 450명이고 부상자는 2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총리의 서명을 사칭해 군사위 부주석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20억 위안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 일은 장쩌민의 손에서 뭉개졌다.

1998년 9월, 전국 밀수에 관한 회의에서 주룽지 총리는 최근 몇 년간 밀수 금액이 연간 8천억 위안인



장쩌민 통치하의 해군 함선으로 공공연히 밀수선 항행을 보호했다. 사진은 중국 해군 구축함이다.(mclarenshe/Wikipedia/CC BY-SA 2.0)

데 그 중 군부가 점하는 것이 5천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대출액의 3분의 1, 즉 1600억 위안을 탈세했는데 군부가 80%를 차지했고 그 금액은 각급 장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군에서 밀수하는 품목은 없는 것이 없었는데 심지어 마약도 있었다. 2001년 3월 28일 BBC 보도에서 필리핀 국가안전보좌관 고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동부 5개 성의 마약 제조공장 중 일부는 중공 군인이 경영한다. 그들은 해마다 약 12억 달러의 필로폰을 필리핀에 수출한다.” 고레는 중국이 필리핀으로 마약 운송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중국의 마약 밀수가 50% 줄어든다면 필리핀의 마약 문제도 절반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후 필리핀 정부는 장쩌민의 중공군이 여전히 마약을 밀수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베이징에 대표를 파견해 항의했다.

불법이익 앞에서 서로 학살

밀수 외에도 군이 사업해 돈을 버는 일은 장쩌민 집권 후 더 심해졌다. 1998년까지는 주룽지의 고집으로 군에서의 사업을 금지해 약 2

만 개의 군 사업체 중 5천 개 미만 이 1998년 말에 지방으로 인수인계됐다.

1998년 군, 무장경찰, 공안의 사업체를 철폐한 후 군에서 자산을 나눠 가졌다. 그러자 돈에 눈이 먼 군과 경찰은 무력충돌을 일으켰고 심지어 서로 장갑차까지 동원했다.

그렇게 ‘인민군대’의 전사들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투다 죽었는데 이런 일은 전국각지에서 일어났다.

장쩌민은 군에서 부패통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색정으로 나라를 오염시켰다. 그는 앞장서서 중공 관리들에게 음란함을 전파했다. 군에서 색정 산업을 크게 벌려 참모장, 정치위원들이 참여했는데 1995년에만 참모부 산하에 15개의 오락실이 있었고 476명의 창녀들을 채용했다.

‘중국 제일의 탐관’ 장롄형(江绵恒)

해외 인사 폭로에 따르면 장쩌민 일가가 관리하는 국가재산은 1조 달러(한화 1300조 원)에 달하며, 그 중 세탁을 거친 금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장쩌민의 아들 장롄형은 거액의 국가자산을 약탈해 해외에 은닉했다.

중국 통신망의 대왕(大王)

1994년, 장롄형은 수백만 위안의 ‘대출금’으로 가치가 1억 위안에 달하는 상하이 연합 투자회사(약칭 상연)를 인수했다. ‘상연’은 상하이시 경제위원회 황 부주임이 기획하고 설립했는데 운영 3개월 후 황 주임은 경제위원회로 복귀됐고 장롄형이 회장 겸 총경리를 맡았다.

상하이 재계 인사들에 따르면 장롄형의 이사 직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상하이의 중요한 경제 분야를 모두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상하이 도강(过江) 터널, 상하이 지하철 이사회에도 지분이 있었다. 장롄형은 중국통신망의 왕이자 상하이탄의 만형이었다.

중국을 비우고 인민을 착취

장쩌민 시절, 중국의 금융비리가



장쩌민의 아들 장롄형은 중국 통신망의 대왕이다.

급증했다. 상하이의 토지개발 자금은 4200억 위안인데 그중 3천억 위안은 행방이 묘연하다. 당국은 이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조사하지 못했다. 그 배후가 장쩌민이나 장씨 일가였기 때문이다.

장쩌민은 중국 은행을 파산시켰고 인민들의 피땀 같은 돈을 마음대로 썼다. 1999년에 축제로 1800억 위안을 썼고, ‘국가 대극장’ 하나에 30여억 위안을 썼으며, 에어포스 원 전용기 한 대에 9억 위안을 썼다.

장쩌민은 또 거액의 돈을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썼다. 장쩌민은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투자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진선인(真·善·忍) 믿음을 광적으로 탄압해 중국의 사회도덕을 나날이 타락시켰다.

장쩌민 통치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금의 해외유출이다. 탐관들도 중공을 전혀 믿지 못하기에 돈을 횡령하면 외국은행에 저축했다. 2000년에만 해외 도피 자금은 48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407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국은 중공 탐관오리들의 1순위 도피처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공 부(部)급 이상 자녀들이 미국



2015년 12월 중국 7개성 34개 도시의 Ezubao에 투자한 수만명이 각 지역에서 투자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자들은 “CCTV 오도, 피땀으로 번 내 돈을 내놓아라”라는 현수막을 펼쳤다. 정부에서 경찰을 파견해 탄압했다.(블로그 사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경우가 74.5%, 다음 세대는 91%에 이른다. 장쩌민이 키운 탐관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100조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전 중국인이 625년 동안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장쩌민이 만들어낸 부패의 여파는 끝이 없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 높은 의료비, 높은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돈도 스스로 감독할 수 없다.

연금을 예로 들면, 중국인들이 낸

돈이 횡령되고 유용돼 연금 부족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선물은 항상 국가의 이름을 빌려 불법 조작으로 민중의 돈을 사기 쳤다. 중국 공산당은 Ezubao,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 등 각종 불법 금융 재테크 회사에 합법적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1억에 달하는 중국인의 재산을 탕진했다. 중국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고 민중을 쥐어짜고 있다. ◇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정좌하고 촛불을 밝혀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지를 호소.

장쩌민의 죄악 3: 파룬궁 박해

1992년 5월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전한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도덕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1억에 달하는 사람이 수련했다.

권력욕과 질투심이 강한 장쩌민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파룬궁 수련생들의 고상한 도덕성이 중공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자 장쩌민은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1998년 하반기, 차오스(乔石)를

비롯한 일부 전인대 퇴직 노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파룬궁은 나라와 민중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어도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심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는 고훈까지 언급했다. 이에 장쩌민은 몹시 불쾌했다.

‘텐진 사건’으로 발생한 1만 명 평화 청원

장쩌민이 집권했을 때 정법위 서기였던 뤼간(罗干)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장쩌민의 비위를 맞출 기회를 노렸다. 장쩌민이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뤼간은 1996년부터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텐진(天津) 사건’까지 조장했다.

1999년 4월 11일, 뤼간의 친척 허쥬슈(何祚庥)는 텐진교육대학의 《청소년 과학기술 박람회》 잡지에 사실을 날조해 파룬궁을 비방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텐진 파룬궁 수련생은 파룬궁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텐진 교육대학 및 관련 기관에 갔다.

그러나 텐진시 공안국은 23일과 24일 폭력진압 경찰을 동원해 불법 체포에 나섰다. 많은 수련생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했으며 40여 명이 붙잡혔다. 텐진시 정부는 탄압은 베이징의 명령이고 공안부가 개입했으니 베이징에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텐진 납치 사건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헌법상 부여된 청원 권리에 따라 1999년 4월 25일, 자발적으로 국가 신방국에 청원하러 갔다.

1만 명 수련생이 국가 신방국(중남해 바로 옆)이 있는 푸유가 인근에 집결했다. 비록 인원은 많았지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치안 유지 경찰도 할 일이 없어 한담하기 시작했다.

주룽지(朱镕基) 총리는 파룬궁 수련생 대표를 접견하고 텐진 공안국에 수련생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일은 기본상 해결됐다.

수련생들은 이날 밤 바닥에 쓰레기와 종잇조각 한 장도 남김없이 주어갔고, 경찰이 바닥에 버린 담배꽂초까지 깨끗이 치웠다. 그러자 질서를 유지하던 한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덕(德)입니다”라고 말했다.



‘4.25’ 청원 현장은 문명적이고 조용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행인과 차량도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다.

‘4.25 상방’ 다음 날 중앙에서 처리 의견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장쩌민을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파룬궁 탄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룽지는 말했다. “이들(파룬궁)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사상적 문제를 더는 운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데, 이는 경제건설이라는 대전제에 불리할뿐더러 대외개방이라는 국가 이미지에도 불리하다.”

그러자 장쩌민은 일어서서 주룽지의 코를 가리키며 “어리석어! 참으로 어리석어!”라고 고함쳤다. 회의 내내 장쩌민은 날뛰며 고함을 질렀다. 이 상황을 본 다른 상무위원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불법 기구 ‘610’ 설립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의 지시로 설립한 ‘파룬궁 문제 중앙처리 영도소조’ 산하에 설립된 것이 ‘610 사무실’이다.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방비 사무실이나 사회안정 사무실로 불렸다.

‘610 사무실’은 중앙정법위에 설치됐으며 그 생성과 존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문화대혁명 당시의 ‘중앙문혁소조’와 마찬가지로 불법조직이다. ‘610’의 유일한 기능은 법을 우회해 모든 정부 기관을 압도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다.

‘1400건’ 가짜뉴스의 진실

파룬궁 박해를 공개하기 전 장쩌민은 선전 부문에 파룬궁을 먹칠할

자료들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1999년 7월 22일부터 중공의 2천여 개의 신문, 1천여 개의 잡지, 수백 개의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이 폭격식으로 파룬궁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 먹칠 선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리수셴(李淑贤)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아청구 신화향의 농촌 여성이다. 1999년 7월 위궈양으로 하얼빈 제4병원에 입원한 리수셴은 가난해 입원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병원장은 “리수셴 씨가 파룬궁을 연

마했다고 시늉하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고 생활에서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리수셴과 가족들은 치료비를 위해 동의했다.

하얼빈시 ‘신만보(新晚报)’ 기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달려가 취재하면서 리수셴의 남편에게 이미 만들어진 대사를 건네고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왔다. 이후 리수셴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서 강제 퇴원됐고 귀가한 직후 숨졌다. 신화향 정부와 아청시 정부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리수셴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됐다. 그러나 이 일은 CCTV에 방영됐고 지방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파룬궁을 공격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도 이렇게 조작됐다.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 조작

장쩌민은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지만 2000년 하반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박해에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싫증까지 났다. 이때 장쩌민의 지시로 전 민중이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1년 1월 23일(선달그믐) 오후,

천안문 광장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2시간 뒤 신화통신은 이례적인 속도로 분신자살자가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전 세계에 영어 뉴스를 전했다. 그러나 CCTV의 분신자살 보도는 허점이 수두룩했다.

국제교육발전기구(IED)는 2001년 8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당국의 국가테러 행위로서 파룬궁에 대한 모함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디오 분석 후 이 사건은 중공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실한 증거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중공 대표는 변명이 없었다. 이



2015년 1월 21일 헤이룽장성 쑹야산시 쟈산구 법원 입구에서 박해로 걸을 수 없게 된 파룬궁 수련생 쑨수제가 들려서 법원에 들어갔다가 불법 재판 후 다시 들려서 경찰차에 실렸다. 성과 시의 ‘610 사무실’에서 재판 과정을 통제했다.



CCTV에서 방송된 ‘천안문 분신자살’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여자아이 류쓰잉은 전신에 두꺼운 붕대를 감았다. 기자는 격리복을 입지 않았고 마스크와 격리모자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리고 가장 감염이 쉬운 마이크를 환자에게 들이댔다. 모든 면에서 의학상식을 벗어난다.



CCTV ‘분신자살’ 비디오: 왕진둥은 전신이 불에 타서 까맣게 됐으나 두 다리 사이의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병(음료수 병)은 불 속에서 변형도, 퇴색도 없었다. 경찰은 불을 끄는 담요를 들고 왕진둥이 카메라에 구호를 외치기를 기다렸다가 담요를 덮어 불을 껐다. 분명 연극이었다.



CCTV 비디오에서 류춘링은 무거운 물체에 머리 부위가 가격당한 후 쓰러졌다.

- ① 팔을 휘두르는 동작 후 류춘링 머리 부위가 가격당함
- ② 무거운 물체가 머리 부위를 가격 후 튕겨 나옴
- ③ 무거운 물체가 튕겨서 경찰에게 날아감
- ④ 한 남성이 가격한 위치에서 있음

성명은 유엔에 기록됐다.

창춘 삼입 방송이 거짓된 철의 장막을 찢다

2002년 3월 5일 오후 8시쯤, 창춘시 파룬궁 수련생 18명으로 구성된 팀이 창춘시 유선 TV망 8개 채널에 《파룬따파 흥전세계》, 《분신자 살인가 사기극인가》 등 진상 비디오를 삼입해 50분 가까이 방송했으며, 약 10만 명 창춘 시청자가 시청했다. 많은 사람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했다는 진상을 알았고 온 도시

가 발각 뒤집혔다.

장쩌민이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다

장쩌민은 뤼간을 통해 지린성 공안청과 창춘시 공안국에 “TV 삼입 방송을 한 파룬궁을 발견하면 즉시 총살할 수 있다. 죽여도 좋다! 일주일 내에 사건을 해결 못하면 창춘시 당서기부터 공안국과 지국 책임자까지 모두 해임하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

창춘시의 광범위한 수사 체포로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이 반박해 대형 퍼레이드에서 중공 박해로 사망한 4800여 명의 중국 파룬궁 수련생을 추모하고 있다.

약 5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됐고, 류청진(刘成军), 량전싱(梁振兴), 허우밍카이(侯明凯), 레이밍(雷明), 류하이보(波海波) 등 8명이 박해로 숨졌다.

총에 맞고 억울하게 옥사한 류청진

지린성 농안현 파룬궁 수련생 류청진은 납치 후 고문에 시달리다 2003년 12월 26일 3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류청진의 둘째 누나 류루(刘璐)는 장쩌민을 중국최고법원과 검찰원에 고소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류청진이 박해당해 사망하게 된

과정을 진술했다.

2002년 3월 5일 지린성 창춘시와 송위안시에서 대규모 유선 TV망 파룬궁 삼입 방송 사건이 발생했다. 장쩌민은 삼입 방송한 자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3월 23일 류청진은 송위안의 이모 집에서 경찰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그가 숨어 있던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 그를 끌어내고 굵은 막대기로 마구 때려 얼굴과 엉덩이, 손등, 발 등 여러 곳에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총을 쏘라, 머리를 쏘, 때려죽여도 괜찮아!”라고 소리쳤다. 리보우(李伯武)라는 경찰이 류청진

다리에 두 발의 총격을 가한 뒤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 트렁크에 감금했다. 박해에 가담한 사람은 창춘과 쑹위안시 형사들로 지린성 공안청장이 지휘했다.

류청전은 3월 24일 지린성 감옥 관리국 중심병원으로 옮겨져 침대 양쪽에 수갑이 채워졌다.

2002년 5월, 류청전은 창춘시 제1 구치소로 옮겨져 고문당하며 52일간 고문 도구 ‘호랑이 의자’에 있었고, 또 ‘잡아당기는 침대’ 고문으로 복막이 찢어졌다.

2002년 9월 18일, 삽입 방송을 한 자에 대한 창춘시 중급법원의 불법 재판에서 류청전이 고문당한 사실을 진술하자 경찰에 의해 독방으로 끌려가 전기봉으로 전기충격과 폭

행을 당했다.

2002년 10월, 류청전은 불법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지린 감옥에 수감됐다. 감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죄수가 두꺼운 침대 판으로 류청전의 등과 허리, 엉덩이를 내리쳤다. 2003년 10월 20일 지린 감옥은 가족에게 전화로 류청전이 위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알렸다.

지린시 중심병원에서 류청전은 가족들에게 그가 매일 폭행을 당했다고 힘겹게 말했다. 류청전은 뼈만 앙상하고 심장과 신장이 심하게 쇠약해지고 인후염이 심하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2003년 12월 26일 오전 4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날 지린 감옥은 경찰들을 규합해 시신을 강제로 화장했다. ◇



한 서양 남성이 '진선인 국제미술전' 미술 작품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선량함과 견인불굴의 정신에 감동받고, 정의와 양심이 언젠가 다시 중국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해외 퍼레이드에서 펼쳐진 장쩌민 심판 현수막

20만 명 장쩌민 고소

2015년 5월부터 20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을 중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고소했다. 장쩌민은 헌법·형법·형사소송법·국제관습법 등을 위반했고, 비방, 조직적 인체장기 판매, 고문, 집단학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중국 각 성과 해외 29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됐다.

장쩌민의 가혹한 파룬궁 박해로 1억이 넘는 마음을 닦고 선(善)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그들 가족이 큰 재난에 빠졌다. 또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려 전 인류가 그 피해를 입었다. 장쩌민 재

판은 민심이 바라는 바로, 이미 전 세계 37개 국가의 3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쩌민을 고발했다.

정법(政法) 관리들의 낙마와 죽음의 직위 '610'

전 군사학원출판사 사장이자 중공 대령 신쯔링(辛子陵)은 당시 “장쩌민은 기어이 파룬궁을 탄압해 개인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룬궁 탄압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1999년 6월 10일에 법률 위에 군림하는 ‘610 사무실’을 만들어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탄압했다. ‘610’은 전 인대에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프블리카'가 장쩌민 강패집단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돈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도시와 향촌에 장쩌민의 죄악을 폭로한 진상 보드판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무원도 거치지 않았다. 문화혁명 소조와 비슷한 '610' 조직은 중국의 도시, 농촌, 기관, 학교에 모두 침투했고 15,000명 이상 규모로 국가 재정에서 경비가 지출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중앙에서 지방까지 '610'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자살, 돌연사 등 각종 비운에 시달리면서 '610'은 '죽음의 직위'가 됐다. 이는 선과 악은 반드시 응보

가 따른다는 중국 전통문화 이념과 맞아떨어졌다.

장쩌민의 독립왕국 '610' 붕괴

첫 번째 낙마한 '610' 관리는 천안 문분신자살 사기극 제작에 참여한 리둥성(李东生)이다. 리둥성은 중앙방송국(CCTV) 부국장, 중앙 '610 사무실' 주임,公安部 부(副)부장을 지냈고, 2013년 말에 낙마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중앙정법위 서기이자 중앙파룬궁문제 영도소조 책임자 저우융강(周永康)도 체포되고 정법 관리들이 줄줄이 조사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소 공무원 81명이 자살했는데 대부분 정법위 고위 관리였다. 현재 정법위,公安 계통에 대한 '역수사 20년'으로 처벌받은 경찰만 7만 2000여 명에 달한다.

중국 언론 보도와 밉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155명의公安청장과公安국장이 낙마하거나 역운을 당했다. 그중 130명이 조사받고, 19명이 숨졌으며, 여러 명이 실형을 받았다. 당시 그들은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목숨을 잃

거나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다음은 2022년 9월에 판결을 선고받은 장쩌민 추종자 중 일부다.

전 중앙610 주임 푸정화(傅政华), 국가안전보위국 두목 쑤리쥘(孙力军) 사형 집행유예 선고

9월 22일, 전 사법부장이자 '610 사무실' 두목 푸정화(傅政华)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푸정화는公安部 부(副)부장, 중앙정부 '610 사무실' 주임, 사법부장 등을 지냈다. 밉후이왕에 따르면 푸정화가 사법부장과 당조직 부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1816명의 수련생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전公安部 부(副)부장, 국가안전보위국 두목 쑤리쥘(孙力军)도 사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쑤리쥘은



중앙 '610 사무실' 두목들 잇따라 낙마

중앙 ‘610 사무실’ 부주임, 공안부 국내안정보위국 국장, 공안부 부부장 등을 거쳤고 파룬궁 박해를 주관했다.

“이 당은 이미 궁지에 몰렸다”

관리들이 장쩌민을 따라 박해에 참여해 사회도덕을 무너뜨렸고, 장쩌민의 만행도 ‘9평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에서 중공(中共)을 무너뜨렸다.’

중공 체제에 불만을 품고 미국으로 망명한 전 중앙당교 교수이자 태자당 차이샤(蔡霞)는 중공 체제가

정치 좀비가 됐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중국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체제 자체에 더 이상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고쳐도 소용없기에 근본적으로 버려야 하는데, 이 당은 이미 궁지에 몰렸다.”

“자손들에게 덕을 쌓아주고 싶습니다”

2021년 38개국 파룬궁 수련생들은 9300명에 달하는 중공 ‘610’ 직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하고, 박해 가해자와 그 가족을 법에 따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됐으며 여러 연령, 직업, 민족 사람들이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마음을 닦으며 5가지 공법을 연마해 건강을 얻고 도덕적으로 향상됐다. 파룬따파는 인류의 심신건강에 대한 걸출한 공헌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5700여 개의 표창장과 지지 서한을 받았다.(사진출처: 파룬따파 사이트)



2022년 5월 13일 ‘파룬따파 전파 3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캐나다 23개 도시 시청에서 파룬따파 깃발 게양식을 개최해 파룬궁이 시민들의 도덕을 향상하고 사회에 복을 가져다준 것에 경의를 표했다. 알 맥도널드 시장(좌측 두 번째)이 ‘파룬따파의 날’ 깃발 게양식에서 중국계 수련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라 제재하고 입국을 금지하며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공 탐관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첫 번째 선택지다. 2021년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그 전날인 12일에 쓰촨성 청두시 전 ‘610 사무실’ 주임 위후이(余辉)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미국에서 처음으로 610 관리를 제재한 것으로 근거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이다.

2022년 8월 3일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탈당센터’는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한 인원이 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 탈당 성명인(声明人)에게 발급한 탈당증명서는 미국 이민국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 4억 명 중에는 중공 체제 내 관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라오닝 기율검사관이 탈당 동기를 밝혔는데 대표성이 있다. 그는 “퇴로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면이지만, 주로는 선량함을 선택하고 하늘의 뜻을 어기지 말며 자손에게 덕을 쌓아주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스위스 빈터투어 도심에서 한 시민이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를 듣고 경악하고 있다.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PC 버전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드로이드 VPN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위의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에 IE, Edge, Chrome 혹은 Firefox 등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바란다.